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다릅니다 (요한 14,27)

가톨릭마산

연중 제32주일
평신도 주일



약속의 땅, 복음의 터전

찬미 예수님!

코로나 유행병은 언제쯤 끝이 날까? 3년에 가까운 이 시간이 이렇게 길게 느껴지는 것은 코로나 종식을 바라는 우리들의 마음이 그만큼 간절함을 의미할 것이라 생각해 봅니다.

올해 교구 평협에서는 교구장님의 사목교서 ‘마음을 다하여’라는 주제 아래 큰 사업 네 가지를 실천과제로 잡았습니다. ‘우크라이나 평화와 난민 돕기’ ‘공소 순례’ ‘욕지 비치코밍(beachcombing) 전시회’ ‘소통의 플랫폼’ 만 들기입니다.

지난 5월 말 ‘우크라이나 평화와 난민 돕기’에 많은 도움의 손길을 주셨습니다. 각 본당에서의 성금과 뜻있는 개인과 시설단체에서 적극적인 호응을 해 주셨고, 특히 같은 아픔을 겪은 베트남 공동체에서 뜻하지 않은 많은 후원금을 보내 주셨습니다. 여성협의회에서는 리본 달기, 교구 레지아에서는 성모님께 이 기간 특별기도를 바치는 등 함께한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마산교구 내에는 52개의 공소가 있습니다. 새로 신축된 공소가 있는가 하면 아직 옛날 그대로인 공소들도 많이 있습니다. ‘공소 순례’를 통해 우리 신앙의 뿌리를 찾고 마산교구의 땅에도 분명히 찾아오셨을 가정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의 시복시성을 위해 청원기도를 바치는 뜻깊은 시간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깊어가는 가을 공소 순례를 아직 시작하지 않은 교우들께서는 자리를 털고 일어나 행복한 신앙 체험을 해보실 것을 추천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칼데아 우르를 떠나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찾았듯이 2023년에는 우리 마산교구 향후 100년을 꿈꾸는 약속의 땅, 진전면 임곡리에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많은 교우들이 어려운 시기, 어려운 살림살이에도 불구하고 정성을 다해 봉헌했습니다. 마산교구청이 들어설 진전면은 일찍이 복음이 받아들여진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이곳 진전면 임곡리 부근에서 병인박해 무렵 큰 박해가 두 차례나 있었습니다.

1864년 갑자년(고종 원년) 정월에는 진전면의 교우 전영운, 김말용 등 여섯 분이 사학을 한 죄로 대구 감영에 붙잡혀 책을 불태우고, 철사묵주를 빼앗기고, 혹독한 문초를 받고 풀려났습니다. 또 1866년 병인년에는 진주진 영장이 문산, 함안, 고성,의 신자들을 색출하면서 진전의 교우들은 또 한 번 혹독한 문초를 겪어야만 했습니다.(경상우병영관첩慶尙右兵營關牒)

고종(高宗) 3년(1866) 이주옹(李周膺)(첩보기록) 150년 전 하느님의 복음이 내려진 이곳에 마산교구청 신청사를 허락해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8월 29일, 그동안 우리 교구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교구장 배기현 콘스탄틴 주교님께서 조출하면서도 엄숙한 분위기에서 퇴임하셨습니다. 새 교구장 서리에 임명되신 신은근 바오로 신부님께서 다음 교구장 주교님이 나오실 때까지 우리 교구를 잘 이끌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지금 우리 교우들은 마산교구 100년 대계를 이끌어 주실 차기 교구장 주교님을 보내 주실 것을 하느님께 간구하며 기도 속에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최종록 대건 안드레아 | 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장

주일 진레

제 1 독 서	2마가 7,1-2,9-14
화 답 송	◎ 주님, 저는 깨어날 때 당신 모습에 흠족하리이다.
제 2 독 서	2테살 2,16-3,5
복 음	루카 20,27-38 또는 20,27,34-38

위령 성월과 선종(善終) 사제

위령 성월(慰靈聖月)은 세상을 떠난 이들의 영혼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달이다.

제67대 교황(재위 608~615) 보니파시오(Boniface) 4세는 609년부터 해마다 11월 1일을 '모든 성인 대축일'로 정하여, 전례력에 별도로 축일이 지정되지 않은 성인들까지도 기념하게 했다.

또 베네딕토회 소속 프랑스 클뤼니(Cluny) 수도원의 제5대 원장 신부 오딜로(Odilo)가 998년, 모든 성인 대축일 다음날인 11월 2일에 연옥(煉獄) 영혼을 위한 미사를 봉헌하면서 위령의 날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것이 차츰 전 세계 교회로 확산하였고, 위령의 날뿐만 아니라 11월 한 달 동안 세상을 떠난 연옥 영혼들을 위해 기도와 희생을 바치자고 하면서 위령 성월이 정해졌다.

2세기부터 죽은 이들을 위해 기도해온 가톨릭교회는 여러 번의 논의 후, 1545년 트리엔트(Trent) 공의회에서 최종적으로 연옥 교리를 공식 가르침으로 선포하였다.

그래서 위령 성월의 정신은 죽은 이들까지도 기억하며 기도하고 희생하게 하여, 지상 생물을 하는 자와 천국의 영광을 누리는 자와 연옥의 단련(鍛鍊)을 받는 자로 이루어지는 하느님 백성의 세 구성원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개신교(改新敎)와는 달리 연옥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이미 하느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위해 하느님께 간구한다는 '통공(通功) 교리'를 확신하는 것이다.

이러한 위령 성월을 살아가면서, 마산교구 소속으로 활동하다가 세상을 떠난 사제들을 생각해 본다. 그들을 선종 순서대로 보면 다음과 같다.

이태식 프란치스코 하비에르(1969.8.10), 석종관 바오로(1974.3.3), 김해동 요한 크리스소스토모(1975.10.6), 정수길 요셉(1978.3.6), 현기호 시몬(1985.12.30), 김재석 요셉(1987.2.18), 차기병 프란치스코 하비에르(1988.2.2), 장병화 요셉(1990.8.3), 김두호 알로이시오(1993.9.26), 문영수 시몬(1994.6.14), 박두환 베네딕토(1995.2.6), 박주선 안토니오(1995.8.3), 이억민 바오로(1996.1.17), 김병운 라이문도(1998.11.13), 서원열 라파엘(1999.3.7), 정삼규 요한(1999.6.15), 김한주 마르코(2001.11.21), 이재철 아드리아노(2006.5.3), 정순구 요한(2009.5.17), 최동오 아타나시오(2009.11.9), 이응석 프란치스코(2010.6.8), 제찬석 요한(2012.6.30), 이강해 스테파노(2012.10.19), 김민수 유스티노(2013.2.7), 김용백 요한(2016.3.13), 조재영 안드레아(2016.4.15), 김덕신 요셉(2018.3.1), 김영식 알로이시오(2019.10.19), 김차규 필립보(2020.3.19), 조규성 베드로(2021.7.31)

1966년 교구 설정 이후 1969년부터 2021년까지 52년 동안 총 30명이다.

그중에서 주교 1명, 몬시뇰 2명, 신부 26명, 부제 1명이다. 그리고 서품 후의 삶은 1~10년이 5명, 11~20년이 3명, 21~30년이 3명, 31~40년이 4명, 41~50년이 9명, 51~60년이 5명, 61~70년이 1명이다. 또 최동오 신부가 62년 12일로 가장 길며, 이태식 부제는 7개월 21일, 차기병 신부가 1년 11일로 너무나도 일찍 선종했다. 모두 평균하면 33년 9개월이다. 선종 나이는 30세까지가 2명, 31~40세 3명, 41~50세 4명, 51~60세 3명, 61~70세 5명, 71~80세 10명, 81~90세 3명이다. 평균 수명은 62년 1개월이고, 1년 7개월 3일에 한 명씩 세상을 떠났다.

우리가 잘 아는 사제도 있고, 또 모르는 사제도 있다. 어떠한 올해에는 열악한 마산교구 이곳저곳에서 열심히 활동하다가 선종한 사제들의 삶의 발자취를 더듬어보고, 하느님 나라에서 성인들과 함께 영원한 안식을 누리도록 기도하도록 하자.



최봉원 야고보 신부(교구 총대리)

거듭된 그림자의 음습에

황광지 가타리나 수필가/ 가톨릭문인회

내게는 F4라는 지인그룹이 있다. 나와는 나이 차이가 제법 있긴 하지만 사회복지 일을 하면서 의기 투합이 잘 되었던 동지들이다. 그냥 Friend, 친구 4명이라고 F4이다. 이 F4에게 요 몇 년 이별의 위기가 들이닥쳐 서로 끙끙 앓고 있다.

F1이 먼저 이별을 맞이해버렸다. 자신을 곁에서 살뜰하게 뒷바라지해 주었던 여동생이 암진단을 받고 손을 제대로 써보지도 못한 채 황망히 세상을 떠났다. 겨우 쉰 살이 된 동생을 보내는 때에 우리는 그를 바라보기가 힘들었다. 일찍 부모를 여의고, 어쩌다 독신으로 산 그에게는 피붙이의 느닷없는 죽음이 이만저만 충격이 아니었다.

그 일을 겪고 나니, 우리는 F2가 떠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조마조마했다. F2는 그 이태 전부터 암 투병을 하고 있었으니 말이다. 사회복지 일을 함께할 때도 워낙 성격이 활달하고 몸을 던져서 일하는 스타일이라 아파도 거뜬히 치유되리라는 기대 같은 것이 있었다고나 할까. 그런데 더 젊은 사람이 속절 없이 떠나는 걸 보니 마음 놓을 일이 아니었다. 병의 진행과 치유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했다. 부친, 남편, 딸 셋, 챙겨야 하는 식구가 많은 F2는 그 식구들의 입과 눈이 큰 힘이 되는 듯했다. 다행히 잘 이겨 내며 점점 허리를 펴는 중이다.

나 F4에게 위기가 닥친 건 지난해 4월이다. 로마에 있던 수녀언니가 중병으로 갑자기 귀국하여 우리 형제자매들이 매달리게 되었다. 한참 오래전 세상을 떠난 부모 대신 의지하던 언니이니, 부모 곁으로 보내서는 안 된다고 울며불며 뛰어다녔다. 언니는 대수술을 받고 항암치료 속에서 죽었다 살아나기를 여러 번 하며, 그래도 지금까지 주님을 찬미하고 있다.

“하이쿠!” 소리가 절로 났다. 올여름 F3마저 모친이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다고 했다. 그는 서원한 독신이라 오랫동안 홀로 원룸에 살다가, 모친과 살림을 합쳐 알콩달콩 산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연로한 모친이니 쉽사리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일반병원에서 요양병원으로 옮기는 과정을 거치며 애태우는 걸 지켜보게 되었다.

잘 나가던 F4에 우환의 릴레이가 이어져 만남이 전과 같지 않게 되었다. 서로에게 위로하는 말문이 자주 삐걱거리며 막혔다. 처음에는 세상에 이런 일이 있냐고 반문하다가, 거듭된 그림자의 음습에 손을 들었다. 우리는 각자의 일로, 자신의 병으로, 가족 뒷바라지로 자주 만나지는 못하지만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고 주고받는다. 때로는 어두움에 초연해져서, 의연한 태도를 가진다. 주님께서 부르시면 어쩔 수 없구나! 더 많이 아픈 순서대로도 아니고, 나이 많은 순서대로도 아니라, 데리고 가시면 따라야 함에 고개를 끄덕인다.

지금 멀쩡한 나라고 마음을 놓지 않기로 한다. 우리는 저마다 노심초사하며 백방으로 손을 쓰고, 라자로를 살리신 것처럼 기적을 달라고 기도로 매달리지만, “다 내려놓아”라고 하시면 겸허히 손을 펼칠 마음을 굳게 한다.



거저 주는 사랑, 갚아 주는 정의

김용태 마태오 신부/ 대전교구

“차가 지나가는데 피하지도 않네!” “사람이 지나가는데 차로 들이미네!”

“어디서 끼어들려고!” “야, 그걸 안 비켜주네!”

입장과 전해가 상반된 이 말들은 서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같은 사람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들이다. 사람과 자동차가 뒤섞인 좁은 도로에서 운전할 때와 걸어갈 때, 수많은 차량이 뒤섞인 혼잡한 도로에서 끼어들기를 할 때와 안 할 때의 반응은 이처럼 서로 다르다. 같은 장소, 같은 상황, 같은 행위라도 그 사람이 처한 위치와 자리에 따라 생각과 감정은 그때그때 서로 달라진다.

그리고 보면 사람들은 보통 타인이 아닌 자신의 입장에서 먼저 바라보고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똑같은 사안이라도 자신에게는 너그러우면서 남에게는 엄격한 ‘자기중심적 이중 잣대’를 만들어 낸다. 탐탁지 않은 어떤 행위도 내가 하면 그럴만한 상황 때문인 거고 남이 하면 그 사람의 됨됨이가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 식이다. 그야말로 ‘잘되면 제 탓, 못되면 조상 탓’이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다. 어쩌면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모습이란 사람의 타고난 본성이 아닐까?

그렇다면 공정과 상식이 무너진 세상, 법과 원칙이 고무줄처럼 적용되는 ‘내로남불’의 세상이라고 할 만한 요즘의 현실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 하지만 아무리 사람이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모습을 지니고 있다 하더라도 정도껏 해야 하지 않겠는가! 다른 사람의 삶을 짓밟고 더 나아가 나라를 말아먹을 정도여서는 안 되는 거다.

인간이란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야 하는 존재다. 이는 이기심을 뛰어넘는 이타적 삶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기나긴 역사 안에서 예수님의 복음말씀을 비롯해 수많은 도덕적 가르침들이 한결같이 타인에 대한 존중과 이타적 삶을 촉구하는 이유는 그 때문이다. 그런데 그게 참 쉽지가 않다. 사람들 개개인의 끈질긴 이기심도 문제지만 그것이 투사되어 만들어 낸 권력이라는 괴물은 온 세상을 집어삼킬 듯이 탐욕스럽고 거세다. 어쩌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본성을 뛰어넘어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이타적인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역시 우리는 그 해답을 예수님에게서 발견해 낼 수 있다. 예수님은 두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 주신다. 첫째는 ‘거저 주는 사랑’이요 둘째는 ‘갚아 주는 정의’다. 이는 이기심을 버리고 이타심으로 나아가는 방식이라기보다는 이기심과 이타심을 하나로 합쳐 주는 방식이다. 다시 말해서 너의 이익은 곧 나의 이익이 되는 것이다.

내가 누군가를 정말로 사랑하게 되면 점점 그를 닮아 가고 결국에는 그와 같아진다. 그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 그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된다. 그의 손실이 내 손실이 되고 그의 이익이 내 이익이 된다. 그러니 사랑하는 이에게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내어줄 수 있다. 이렇게 이웃을 자신처럼 여기고 거저 줄 수 있는 사랑 안에서 이기심은 이타심과 하나가 된다. 이는 본래 예수님이 알려 주신 하느님의 모습이다.

하느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와 같아지시고 우리를 배불리시려고 양식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목숨까지 내어놓으신다. 하느님의 이 사랑을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느님 닮은 ‘이웃 사랑’을 계명으로 주신다(루카 10,25-37/ 요한 13,34;15,12-17 참조).

그런데 그 사랑 또한 참 쉽지가 않다. 우리가 하는 사랑이란 게 기껏해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나 나에게 잘해 주는 사람, 되받을 가망이 있는 사람에 국한되어 있지 않은가!(루카 6,32-34 참조)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억지로라도 지켜야 할’ 계명으로 주셨을까! 쉽지 않기 때문인 거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기심을 극복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갚아 주는 정의’다.

“보시다시피 저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스승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 저희는 무엇을 받겠습니까?”(마태 19,27) 베드로의 이 물음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신다. “내 이름 때문에 집이나 형제나 자매, 아버지나 어머니, 자녀나 토지를 버린 사람은 모두 백 배로 받을 것이고 영원한 생명도 받을 것이다.”(마태 19,29) 예수님에 의하면 ‘거저 주시는 사랑의 하느님’은 또한 ‘갚아 주시는 정의의 하느님’이다(마태 6,3-4 참조). 하느님은 우리가 가난한 이들과 나눔으로써 하늘 나라의 보물을 차지하게 하시고(마태 19,21 참조) 자비를 베풀으로써 더 큰 자비를 입게 하시고(마태 5,7;18,33/ 루카 6,35 참조) 목숨을 내놓음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다(요한 12,24-25 참조). 또한 ‘거저 라자로’처럼 이승에서 고초를 겪게 되면 죽어서라도 위로를 받게 하시고 ‘비정한 부자’처럼 이승에서 호사를 누리면 죽어서는 고초를 겪게 하신다(루카 16,25 참조). 이렇게 갚아 주시고 바로갚아 주시는 정의의 하느님은 ‘너를 이롭게 하는 것’을 곧 ‘나를 이롭게 하는 것’으로 만들어 주신다. 그러니 우리가 아직은 많이 부족하여 거저 주시는 하느님의 사랑을 온전히 본받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갚아 주시는 하느님의 정의에 대한 믿음과 순명 안에서 자기가 가진 것을 이웃과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결국 공정과 상식이 무너지고 ‘내로남불’이 만연한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위의 두 가지 노력이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 사실 역사 안에서 이러한 노력들은 이미 있어 왔다. 바로 ‘사회복지’와 ‘사회정의’란 것이다. 우리가 ‘사회복지’라고 말하는 것들은 거저 주시는 하느님의 사랑을 구현해 내려는 노력들이고 ‘사회정의’라고 말하는 것들은 갚아 주시는 하느님의 정의를 구현해 내려는 노력들이 아닌가! 그렇다면 복음을 선포하는 우리 교회는 달리 말하면 세상 안에서 ‘사회복지’와 ‘사회정의’를 선포하는 교회이기도 한 것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 안에는 ‘사회복지’에 대해서는 우호적이면서 ‘사회정의’에 대해서는 불편해 하거나 적대시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 정의 없는 자선이라나... 가진 자들의 값싼 동정심 같은 것 아닌가! 세상을 바라봄에 있어 낸 눈 속의 ‘들보’는 없는지 늘 반성해 볼 일이다(마태 7,3-5 참조).

출처 : 월간 생활성서



교구장 서리 동정

추수 감사미사

일시: 11월 7일(월) 11:00

장소: 함안성당

반석 청소년 축제 파견미사

일시: 11월 13일(주일) 15:00

장소: 창원문성대학교

교구/본당

소공동체 연구위원 모임

일시: 11월 11일(금) 18:00/ 장소: 교구청

제31회 반석 청소년 축제

일시: 11월 13일(주일) 11:00/ 장소: 창원문성대학교

예비신학교, 여학생 예비성소 모임(반석제 참가)

일시: 11월 13일(주일)

위원회/기관/단체

지속적인 성체조배회 11월 기도모임

일시: 11월 7일(월) 14:00~14:30-성체조배
14:40~15:10-미사(주례: 정운호 신부)
15:20-회의

장소: 하대동성당

대상: 지속적인 성체조배회 교구 봉사자

문의: 회장 010-3903-8234

2022년 마리아 사제운동 전국 체나폴로 대피정

일시: 11월 19일(월) 09:30~17:00

(마산, 창원 07:00 출발)

장소: 대구대교구 주교좌 범어대성당

준비물: 메시지 책, 미사 준비

문의: 회장 010-9399-5454

※11월 체나폴로 다락방 모임은 전국 대피정으로 대체합니다.

기타

성골롬반 외방선교회 평신도 선교사 관심자 모임

일시: 11월 13일(주일) 14:00~17:00

장소: 평신도선교사센터(성신여대 입구역 1번 출구)

대상: 해외선교에 관심있는 24~40세 신자
문의: 010-3817-0567, columban.or.kr

제주 성이시돌 자연순례 피정

천혜의 아름다움을 지닌 섬 제주에서 갖는
평화로운 '침'과 재충전의 시간

일시: 11월 26일~28일/ 12월 2일~4일/
12월 10일~12일/ 12월 16일~18일/
12월 31일~23년 1월 2일/ 23년 1월 7일~9일

대상: 개인, 가족, 일행, 본당단체 구반장
문의: 02-773-1455, 064-796-4182

제주 면형의집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사·신부들과 제주 성지·역사·생태 순례와 미사를
함께하는 산들평화순례 피정

자연순례: 12월 3일~5일/ 12월 9일~11일/
12월 16일~18일
연말연사: 12월 30일~23년 1월 2일(눈꽃산행)
문의: 02-773-1463, 064-756-6009

예수마음기도 영성수련

일시: 1박 2일- 12월 3일(토)~4일(주일)/
23년 2월 25일(토)~26일(주일)
3박 4일- 11월 10일(목)~13일(주일)/
12월 15일(목)~18일(주일)
8박 9일- 11월 16일(수)~24일(목)/
12월 26일(월)~23년 1월 3일(화)

40일: 12월 10일(토)~23년 1월 18일(수)
장소: 경기도 파주시 문산 예수마음피정의집
문의: 010-4906-5722, 031-953-6932

원어로 읽는 성경 기초반(zoom강의)

기간: 23년 1월부터 1년/ 수강료: 3개월 30만 원
시간: 수요일 19:30~21:30(히브리어/ 히랍어)

문의: 프란치스코회 010-4598-6912

최재상 신부 10번째 개인 전시회

“코로나 이후를 생각하며”

일시: 11월 17일(목)까지

장소: 대구 범어동 제2주교좌
드망즈 갤러리



기억할 선종 사제

최동오(아타나시오) 신부
2009년 11월 9일



기억할 선종 사제

김병운(라이문도) 신부
1998년 11월 13일

故 김병운 라이문도 신부 24주기 추모미사

일시: 11월 13일(주일) 15:00

장소: 고성 이화공원묘원 성직자 묘역

문의: 남경철 신부 010-9514-0825

의령사랑의집 여성지적·발달장애인 핸드벨 정기연주회

제4회 소리샘벨콰이어 정기연주회

일시: 11월 10일(목) 19:30

장소: 마산 3.1아트센터 대극장

●전 좌석 무료 공연



교구 2023학년도 유치원 신입 원아 모집

교구 내 유치원 신입 원아모집에 신자분들의 적극적인 홍보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성미유치원(고현성당) 거제시 거제 중앙로 19길 18
문의: 055-636-4288
- 성모유치원(명서동성당) 창원시 의창구 우곡로 177
문의: 055-265-0791
- 성모유치원(옥봉동성당) 진주시 향교로 42번길 5
문의: 055-741-4855
- 성심유치원(중앙동성당) 창원시 진해구 중원동로 64
문의: 055-547-7187
- 소화유치원(문산성당) 진주시 문산읍 67번길 9-4
문의: 055-761-8755

성령기도회	일시	장소	주제	강사	미사 주례	문의
교구	11월 7일(월) 19:00	중앙동성당	우리 신앙의 현주소	정중규 클라로 신부(원로사목자)		010-5072-5612
청년	매주 (수) 19:30	교구청 별관 지하	성령기도회	19:30 묵주기도/ 20:00 기도회(1주: 미사, 3주: 치유기도)		010-6667-7809

수도회 성소자 모임	일시	장소	문의	비고
한국외방선교수녀회	원하는날(미리연락)	원하는 곳	010-9353-1773(우 노아 수녀)	대상: 수도생활과 해외선교에 관심있는 미혼여성
작은형제회(프란치스코회)	상시	원하는 곳	010-6608-3217(김종관 미카엘 신부)	ofmkvocation@gmail.com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College of Music Seoul National University

성악/기초발성 전문
성가, 가곡, 입시, 그룹레슨 운영
상남동 소재

김민형 요셉 010-5110-3039

가톨릭 우리농 직매장

유기농산물 · 유기농식품 전문점

창원시 중동중앙로 47 어반브리스 상가 1층

055-266-7010

천차만차 대동모터스 매매 31호

모든 중고차 매매 알선 위탁
창원시 의창구 무영로 489(팔용동)

구자룡 힐라리오 안경미 세라피나
055)288-1137
010-6299-1137

가톨릭신문 투어

- ▶11/29(화)~12/3(토) **베트남** 125만 원
- ▶12/26(월)~30(금) **베트남** 125만 원(홍성남 신부 지도)
- ▶23.1/9(월)~17(화) **이스라엘** 445만 원
- ▶23.1/21(토)~29일(주일) **선택선 이탈리아** 430만 원
- ▶23.1/25(수)~28일(토) **일본 나가사키** 125만 원

www.cttour.org
■신청·문의 02-2281-9070

동우 건축 인테리어

아파트, 주택 리모델링 및 화장실 시공
정직한 시공 / 가성비 뛰어난 시공 비용
일단 부담 없이 견적을 받아 보십시오

강동주 (세례자 요한)
010.5053.5393

마산 예경요양병원
(치매, 중풍, 만성 노인성 질환)

마산 예경병원
(알코올 및 정신 질환)

055)249-5555 (구. 마산 파티마병원 자리)
이사장 김석주 베네딕토 010-3592-8329
* 부모님처럼 모시겠습니다. *

보고, 듣고, 느끼는 공소 순례 7

홍숙양 루시아(신안동본당)

생각지도 못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공소 순례를 하겠다는 말에 외딴 교우인 나에게 남편은 기꺼이 동행하며 운전을 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매주 토요일은 행복한 공소 순례를 하는 즐거운 날이 되었습니다. 진주에서 가까운 7차와 6차 순례길을 먼저 시작하였습니다.

매번 그냥 지나쳐 왔던 은점공소, 미조공소를 찾아보았고, 삼장공소의 어려움과 옥종공소의 30년 지킴이신 성모님을 닮으신 노모는 깊은 여운을 남겼습니다.

5차, 4차 순례길은 소공동체의 기도와 공소 예절로 지켜온 신앙심이 그대로 느껴지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3차, 2차 순례길은 공소를 지켜온 신앙의 깊이가 더더욱 깊어 발걸음이 무겁기도 하고 가볍기도 하였고, 선조들의 신앙을 잠시 묵상하는 순례의 길이었습니다. 이제 세 분의 노모만이 옛 '백운공소'를 지키고 있습니다. 장수와 함양의 경계에서 우리 마산교구 복음의 씨앗을 키우며 신앙의 빛이었던 '백운공소', 한 가족의 신앙이 기적을 이루었던 '실매공소' 등 저의 작은 맘에 주님을 향한 불씨를 지폈습니다. 마지막 1차 순례길은 험난했던 공소 생활이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변화됨을 보게 되었습니다.

가조공소에서는 준비해 간 도시락을 성모님 앞 벤치에서 먹으며...

멋진 자연을 만나고 공소의 향기를 느끼며, 척박했던 역사 속에서도 늘 성모님과 함께 지켜온 뿌리 깊은 공소의 신앙생활에 대하여 시간 거슬러 적어보았습니다. 올여름 뜨거웠던 기온을 잊게 한 아름다운 공소 순례길이 신앙인으로 참 뿌듯한 시간이었습니다.



백운공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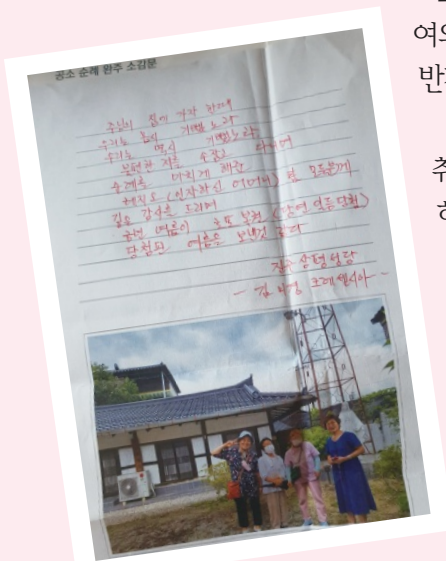
보고, 듣고, 느끼는 공소 순례 8

문정임 켄마(상평동본당)

2017년 한국순교성지 111곳을 순례한 적이 있다. 그 감흥을 되살리고 싶어 애를 썼으나 여의치 않았다. 그러던 차에 2022년 교구 평협에서 공소 순례를 시작한다고 할 때 너무나 반가웠다. 이때다.

공동 순례를 할 우리 Pr. 단원이 8명인데 중증질환자, 시각장애우, 고령 어르신, 저임금 취업자, 혼자 사는 이 등 순례는커녕 평일미사도 충실하기 어려운 이들의 집합체다. 다행히 차량 2대는 확보할 수 있어 설득하고 강력히 추진하여 2개월 만에 1~7차까지 마쳤다.

신심을 한곳으로 모으기 어려웠던 우리 Pr.에 공소 순례라는 이벤트를 대입함으로써 기도, 참배, 친교, 헌금을 자동적으로 해결하고 실천하는 모습을 보고 기뻐다. 무더위 가운데 미조공소를 마침표로 찍고 소감문을 쓰고 책자를 거두는데 가슴이 벅차다. 그들도 처음에는 긴가민가했는데, '해냈다'는 자신감이 들었다 했다. 늘 단장으로서 어떻게 화합과 일치를 이루게끔 할 수 있을까 고민했는데 좋은 계기가 되었다. 성당에서 출발 전 기도를 할 때 간식 배낭을 메고와 길 떠나는 성모님 같은 설렘을 안은 얼굴을 한 단원들, 오래오래 기억해 두고자 여기 두어 자 쓰고 마친다.



- 공소 순례밴드 가입방법: 네이버 검색창 '마산교구 공소순례밴드' 입력 → 가입
- 공소 순례 책자 구입: 010 · 9349 · 5088(교구 평협복음화분과 이한규 안드레아)
- ▶ 공소 순례 기부금을 입금하신 분은 공소 순례 책자를 교구 평협 사무실로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곳: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북 16길 27 5층 평협



기도 안 하면...

작은자매관상선교수녀회

벌써 삼십 년도 더 지난 일인데 엇그제 일처럼 선명히 남아있다. 어느 날 동네 꼬마들이 수녀원 성당 가까운 마당에서 시끄럽게 떠들기에 “췌, 수녀님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어.”라고 주의를 주니 대뜸 “기도는 왜 해요?”라고 다섯 살 난 여자애가 물었다. 어떻게 대답할지 망설이는데 그 옆의 일곱 살짜리가 “수녀님들이 기도 안 하면 그냥 사람 된다.” 앞질러 답했다. 어찌 수녀들뿐이겠는가? 그리스도인도 기도를 안 하면 그냥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 될 터이다.

우리 수도회 이름은 길다. <작은자매관상선교수녀회> 교회 안에서 살아내고자 하는 지향을 담아내고 싶어서다. 그리고 우리 수도회가 따르는 샤를 드 푸코 신부의 영성을 나타내고 싶어서다. (참고로 우리 수도회 창설자는 안드레아 가스파리노 신부다. 푸코 신부는 수도회 창설의 뜻을 가지고 있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고 그가 떠난 지 십오 년이 지난 후 수도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였으므로 푸코 신부의 영성을 따르는 수도회들은 창설자가 따로 있다.)

관상과 선교

관상 수도회라 하면 바깥세상과는 단절된 봉쇄를 떠올리게 된다. 그런데 푸코 신부는 세상 안에, 가난한 이들 틈새에서 그들과 함께 부대끼며 관상을 살고 싶어 했다. 이를 우리 회칙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우리 수도원을 둘러싸고 있는 봉쇄의 벽은 바로 가난한 이들입니다. 우리 프라테르니타(형제애를 나누는 작은 공동체) 들은 항상 가난한 이들에게 열려 있는 작은 관상 공동체이길 바랍니다.”

선교에 관해서는 푸코 신부님의 말을 직접 인용해 보자.

“나의 사도직은 선량함의 사도직이 되어야 한다. ‘이 사람이 착하고 어질기에 그의 종교 또한 진실하고 선량할 것이다.’라고 말하도록 해야 한다. 사람들이 나에게 ‘종이 이 정도라면 그 주인은 얼마나 선량할까?’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삶과 영성 p.61)

<관상과 선교> 어찌 우리 수도회만의 과제이겠는가? 세상 안에서 하느님 나라를 건설하도록 부름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과제이며 행복이 아닐까!

행복? 왜냐하면, 하느님께 마음을 드리고 그분의 사랑을 먹는 관상으로 또 그 사랑을 이웃과 나누는 선교로 우리의 삶은 풍요롭게 되고 기쁨으로 채워지기 때문이다.

사랑이신 하느님과 하나 되는 성체성사(미사) 뿐만이 아니라 날마다 드리는 묵주기도가,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뜻을 헤아리는 묵상기도가 하느님의 사랑을 먹는 일이어야 한다.

나의 기도가 내 삶에 사랑을 더해 주는가? 내 안에 사랑이 자라도록 해 주는가? 거듭 자문해 볼 일이다. 입술만의 기도는 멈추어야 한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다른 민족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마라.”(마태 6,7)

“기도한다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며 사랑한다는 것은 변화하는 것이다.”(안드레아 가스파리노)

